

여수단지 특별 소방안전 점검

여수소방서, 11월 말까지 실시 ... 위반하면 행정조치 방침

전남 여수소방서가 여수산업단지 석유화학기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소방서의 점검은 10월3일 호남석유화학 여수공장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No.3 폭발사고를 계기로 화재예방 의식을 높이고 대형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07개 기업에 대해 11월 말까지 실시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화재요인 사전 제거와 대응체계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안전관리 수칙 준수 여부, 소방시설 정상작동 여부, 위험물 저장·취급·운반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여수소방서는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지도하고, 불량 및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명령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Chemical Journal 2003/10/13>